예수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 : 김경림 / **편집인** : 윤 진 / **발행** : 예수대학교 동문회 TEL.(063)230-7730 / FAX.(063)230-7790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560-714) **http://mpu.ac.kr**

2008.11
Vol. 8

제8회 동문 가관식 사진입니다.
다음호에는 9회 동문의 사진이 소개됩니다

Contents

2008 vol.8

03 **회장인사**
한 뿌리에서 만난 선후배 그 마음과 마음 _ 김경림

04 **동문 시**
다시 처음처럼 _ 정하숙

05 **총장인사**
이제는 Jesus University 입니다

06 **선교지 소식**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람 _ 엄정이
꿈꾸는 자의 삶을 소망하며 _ 서현정

08 **편지글**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자랑스런 모교를 선물합니다 _ 김석심
설렘, 흥분, 뭉클, 고마움, 배려…나는 예수대 동문이다! _ 김은정

10 **기별모임소식**
30년을 넘나드는 찐한 "우리야" 패밀리가 떴다 _ 이길숙

11 **수필** 간호현장은 인생수업의 연장이다 _ 조혜숙
만화 천고마비 _ 김미선/최선영

12 **간증문**
얘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쪽팔렸단다 _ 류금주

14 **국내여행기**
오늘도 해가 돋는 섬 독도 _ 이지숙/최경미/정민경

15 **해외여행기**
유럽, 설레임으로 물들다 _ 김봉선

16 **영화감상문**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 '맘마미아' _ 조민숙

17 **재상봉**

18 **동문회 소식**

19 **회장동정 및 회원소식**

22 **모교소식**

24 **대학발전기금안내**

28 **개교60주년 기념사업안내**

김경림 회장 (24회)

한 뿌리에서 만난 선후배 그 마음과 마음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국내외의 의료현장에서 성스러운 간호사로서, 충실한 선교사로서 항상 기쁨과 웃음을 전파하시는 자랑스러운 예수대학교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하는 믿음의 상징이신 동문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예수대학교 개교 58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신 5회 동문들과 졸업 25주년을 맞이하신 30회 동문들의 반가운 재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얼굴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들만의 사랑과 추억을 나누었던 행복한 시간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껴안고 기쁨을 함께하는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도 흐뭇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개교 58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열린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유영삼 동창회장님의 뒤를 이어 24회인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생각에 피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의견과 누군가는 나서서 모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감히 회장 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자랑스러운 예수대학교 동창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하나님과 선후배 동창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우리 동창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눈물겨울 만큼 헌신하신 공순구, 유영삼 전 동문 회장님 그리고 김강미자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구성된 새로운 동창회 임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모두 40-50대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속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 동창회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로 선배 동문님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이룩하신 뜻을 바르게 이어 받으며 젊은 새내기 동문들에게는 우리는 한 뿌리의 동창이라는 일체감으로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사랑과 동창회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는 2010년은 우리 모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이곳 중화산동 산기슭에 뿌려진 하나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열매 맺기 예순 해되는 그 날에는 꿈속에서도 그리웠던 모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진리와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하나님의 뜻이 온 누리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라오며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대학교 동창회 회장 **김경림** 올림

다시 처음처럼

정하숙 예수병원 간호과장 (25회)

다시 처음처럼
네 아픔이 나의 것 이라면
내 아픔이 너의 것 이라면
이리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련만

가을은 자꾸만 깊어져 가는데
하늘은 빨리도 저물어 가는데.

다시 처음처럼
네 기쁨과 내 기쁨이 만나
하나로 흘러갈 수 있다면
서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련만

꽃은 하나씩 시들어 가는데
낙엽은 바람 따라 흩어져 가는데.

네 마음 내 마음이 어께동무 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것처럼

다시 처음처럼
흘러가는 구름보며 도란도란 따주보며
노을 지는 갈대 숲 샛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잃었던 봄도, 사라진 여름도 다시 돌아올 텐데
푸르른 꿈도, 아름다운 웃음도 다시 돌아올 텐데.

김강미자 총장

예수대학교!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Jesus University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3,935명의 동문들께 인사드립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초대 교장의 이름으로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라고 불려왔던 우리대학교 영문이름이 2008년 11월3일 최종 이사회의 의결로 Jesus University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문이름이 한글명과 달라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명칭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동문, 학생,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날 국문과 영문이름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존귀하신 Jesus로 학교명이 바뀐 것에 대하여 신실하셨던 고 변마지 Margaret Pritchard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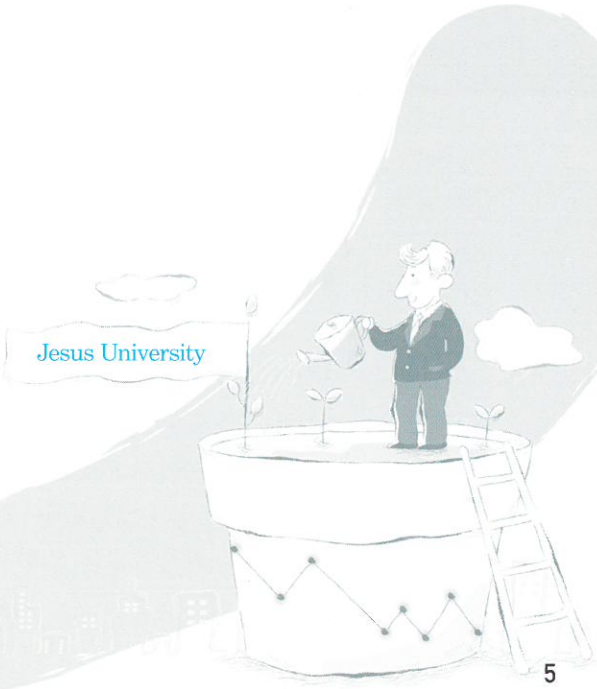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Jesus University는 간호 · 사회복지 분야의 Global Christian Leader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호와 사회복지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Learning Hub 실현에 특성화 비젼을 두고, 돌봄과 나눔의 기독교적 인성을 소유한 리더와 Global capability를 갖춘 현장 적합형 간호 · 복지 서비스 전문가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역량을 소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대학교의 캠퍼스에는 오로지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과 인류를 위한 비젼으로 이상을 품은 젊은이들, 그리고 깊은 애정과 Passion으로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Jesus University 입.니.다

이제 Jesus University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60주년을 맞는 2010년에는 의미 있고 다양한 축하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열방으로 나가 선교사로 사역중인 20여명의 동문선교사들을 포함한 한국의 간호선교사와 함께 간호선교대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날은 그동안 동문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유산을 펼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리며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지속적인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일을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대학교 총장 **김강미자**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엄정이 캄보디아선교사 (27회)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교(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에서 사역중인 엄정이 선교사입니다. 27회 졸업생으로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남편과 함께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병원 신참 시절에 선교에 대한 헌신의 비젼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 바쁘다보니 어느 사이 나는 생활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여러모로 저를 만져 주셨어요. 2000년도쯤에 사고로 목 수술을 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들의 타계로 마음과 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전에 주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그 후에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주님께 대한 열망은 계속 되어져 두렵기까지 했어요.

기도제목 : 사역을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가 복음화 되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 하도록,
주님이 원하는 많은 사역자가 동참하도록

그 시기에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에 단기선교와 아웃 리치를 하고 있었고 중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캄보디아를 품도록 하셨고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주셨습니다. 그즈음 캄보디아국립 기술대학교가 개교를 준비 하는데(2005년) 자체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한국에 협력 학교를 수소문 하던 중에 전주대학교와 협력하기로 되었고 전주대에 근무하던 남편이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게 되었지요. NPIC대학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교수는 거의 30명 정도인데 거의가 무보수 교육 인프라에 참여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과 의무실에서 간단한 진료와 치료를 하고 있고 이곳의 생활 형편과 위생이 열악하여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일년에 한번 씩 구충제가 확보되면 신입생들에게 복용 시키고 있어요. 어느 날은 학생이 귀 뒤에 혹이 나서 너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치료해 주라고 와 만져보니 cystic mass였 고 syringe로 aspiration을 하니 피고름이 많이 나왔고 몇 차례 치료 후에 완전히 나아지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다를 아이들도 아프면 자주 오곤 합니다.

국교가 불교인 이 나라에서는 공개적으로 국립학교에서 신앙전도를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은근하게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또는 수업과 생활 중에 주님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모든 변화는 교육에 있다고 믿는 이들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동문 여러분들을 간호사로서(한국어 교수 과정이수 하면 더욱 좋음) 주님의 사역자로 초대합니다.

물질 만능의 이 시대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우리 동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정 Y 국 선교사 (42회)

꿈꾸는 자의 삶을 소망하며

어느덧 이 곳에서 생활한지 4년 다 되어갑니다. 참 멀리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잘 적응하고 작게나마 이 곳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격려에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42회 졸업생입니다. 졸업 후 예수병원에서 근무했었고, 외과 레지던트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선교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가길 처음 서원하였고, 늘 마음의 짐이자 부담으로 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시금 처음 서원하던 때를 상기하게 되었고, 예전에 이 예수병원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섬기셨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다시금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인 한국 인터서브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 곳에 들어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2년 동안 영어와 선교학을 공부하였으며, 이 곳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아랍어를 배운 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초년병 선교사이기에 여전히 훈련 중이라 생각하며 좀 더 겸손함으로 배우며 일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간호(4개월), 중환자 간호(3개월), BLS(Basic Life Support) 입니다. 지금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환자실을 셋팅하고 있습니다. 400병상 규모의 크기인데도 중환자실이 없었고, 저희가 병동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맡겨지는 중환자들을 더 이상 일반병동에서 간호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처음엔 작게나마 4병상으로 중환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본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간호사들(1기, 2기 수료) 중 10명 정도를 선발하여 중환자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Y 국은 여러 면에서 필요가 큰 나라입니다. 99.8%가 무슬림이고 개종 자체가 금지 되어있으며, 현지인들이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교회가 전혀 없는 나라이고, 기독교 핍박지수도 늘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박해가 심하고 그 만큼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거대한 복음의 물결은 막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현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땅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작게나마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 되기를 바라며, 이 병원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날에 이 땅 백성들이 금과 유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분께 드리는 찬양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마음속에 품으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이 땅 백성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김석심 미국 조지아 거주 (5회)

저는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졸업한지 50년 세월을 보내고 제5회 졸업생들의 재 상봉에 참석치 못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늦게나마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간호대학 동문회보를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뿌듯함이 넘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과 비젼을 키우고 이룩한 이 대학이 명실 공히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예수대학교라고 명칭을 이룩하기 까지 반 백년이 훨씬 넘은 세월, 그곳은 우리들의 자랑이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 대학이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 마가렛푸릿차드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예수병원 원장 Dr. Crane, 그 뒤를 이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해온 선교사님들과 여러 수고의 손길들. 그분들의 쉬지 않은 기도와 수고의 피와 땀을 기억합니다.

자랑스런 모교를 선물합니다

그 뒤를 이어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산에서 배움을 같이하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배움을 같이한 사랑하는 우리 동창들! 아름다운 얼굴 얼굴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세월이 무상하여 이제 제 나이 72세가 되고 보니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소명의식을 이어 받아 우리 동창님들은 전 세계를 향해 간호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58년에 우리 예수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제주시와 도청, 제주간호학교에서 근무했었지요. 1973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케냐에 단기선교도 다녀왔지요. 2007년 교회에서 노인사역을 끝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소명을 깨우쳐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예수대학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졸업생 제5회 김석심 올립니다.

김은정 (38회)

설렘, 흥분, 뭉클, 고마움, 배려...

나는 예수대 동문이다!

제58회 개교기념 예배를 맞아 모교를 찾아가는 길, 살며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4월 초에 한번 잠깐 다녀갔지만 그때는 교수님들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뵙고 인사드리면 어렴풋이 기억은 해주실까? 동문회도 있다는데 내가 아는 반가운 얼굴들도 볼 수 있을까? 녹원 축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예전보다 더 알차고 즐겁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에 옛 추억을 더듬으며 다시 찾은 모교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캠퍼스에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넘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만은 생기발랄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개교 기념 예배와 오찬.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된 교수님들. 너무 곱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이신 교수님들을 뵈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치 세월을 비껴가신 것처럼 한결같으신 모습들에 지난 2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 88학번 신입생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교수님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어려웠었는데, 졸업한 후에 이렇게 뵙게 되니 꼭 엄마 같고 언니 같은 느낌에 사뭇 뭉클해졌습니다. 너무들 다정하게 반겨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그 동안 마음뿐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 한번 제대로 못한 죄스러움도 조금은 잊고 소중한 재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졸업 후 ICU에서 일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으로 결정한 미국 유학의 길.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병원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 영주권 스폰서해줄 병원이 정말 많지 않았었어요.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원이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여기 저기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 내에서의 병원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스폰서까지 해줘야 하는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할 병원은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작은 한국 개인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여 적은 월급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년이면 영주권이 나온다고들 해서 근무 조건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시작했는데 결국 4년이 넘게 걸려 영주권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그만 두고 다시 미국 병원에 이력서를 넣어 보니 이번엔 미국내 acute care facility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고용하기 어렵다고들 하더군요.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다시 일년. 그러나 그 일년 후엔 내가 원하는 미국 병원에서 수당도 흥정하는 배짱도 보이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한 발 앞선 시작이었습니다.

만일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예수 간호 대학을 졸업했기에 미국이민의 길이 수월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가진 것도 별로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에 나가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간호사로 양성해주신 교수님들, 주변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교수님들과 모교에 대한 고마움이 살아가면서 자꾸 커지나 봅니다.

그립고 고마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찾은 모교의 훨씬 커지고 새롭게 변모한 캠퍼스를 둘러보며,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것은 변해서 좋고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모교에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았지요.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좀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 간직해야 할 것들과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내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후배들에게 돌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교를 뒤로했습니다.

30년을 넘나드는 찐~한 "우리야" 패밀리가 떴다

이길숙 (24회)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효정, 이은희, 유계숙, 김영희, 정강숙, 김인숙, 이길숙, 이명숙, 김경림

간호학과 24회(74학번) 동문모임인 '우리야' 친구들이 2008년 6월 13일-14일 무주구천동 덕유산자락의 한 아름다운 팬션에서 만났습니다. 여러 각처에서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자 모두들 달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중년의 넉넉한 모습으로 변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학창 시절 그 모습을 다시 찾으며,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참석자 : 이효정, 이은희, 유계숙, 김영희, 정강숙, 김인숙, 이길숙, 이명숙, 김경림, 윤선영, 양명순, 김순애).

우리야 동문들은 선교사로서, 사모로서, 전업주부로서 그리고 환자들 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천한 친구, 병마에 시달리는 친구,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기며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소식은 안타까웠지만,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꿋꿋이 살아가는 친구들의 소식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친구를 위로하고자 멀리 미국까지 가서 함께 보듬으며 울었던 친구의 나눔은 잔잔한 감격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꿈이 많았던 시절, 함께 실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고민했던 우리들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는 어느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실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

우리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하늘만큼 풍족한 마음으로 그리운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 봅니다.

간호현장은 인생수업의 연장이다

가을의 코스모스 향기와 선선함을 머금은 _ 바람이 간혹 우리의 지침을 달래곤 하는 요즘.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유익함에 발돋움해온 날들이 어느덧 열한 번 째 해를 맞고 있다.

어릴 적 나약하고 작은 한 소녀의 마음은 우연히 알게 된 위인, 나이팅게일의 헌신과 수고로움 속에서 많은 전쟁 부상병과 허약한 이들이 위로함을 받은 사실에 묘한 자극을 받았다. 간호대학 시절, 실습을 앞두고 나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모든 병약한 환우들을 나의 가족처럼 감싸 안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신규시절, 어렵기만 했던 대 선배님과의 응급간호현장에서 함께 손발을 맞춰주지 못해 책망을 받으며 하염없이 서럽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힘들 때가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숙사에서 출근준비를 하며 전날의 실수를 적어둔 메모장을 보고 기록된 내용을 되 뇌이며 암기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그런 소중한 나날들이 어느덧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게 아닐까?! 10여 년간 응급실에서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대하면서, 인생의 간접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전문 지식뿐 아니라, 인생을 배운다고 후배에게 되 뇌이곤 한다.

조혜숙
예수병원 응급센터 (44회)

흔히,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_ "요즘 후배들은 우리 때 같지 않게 많이 다르다"라는 말이 이젠, 내게도 실감이 난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풍요로운 환경에서 귀하게 자란, 귀한 집 공주님들? 이어서일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들에 미숙함이 엿보인다. 한때 나는 미덕인양 쓴 소리를 되도록 아끼고 아꼈으나 요즘은 쓴 소리도 '후배들의 인격에 도움이 된다면...' 숙고한 뒤, 조언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 물론 나 또한 미숙한 시절이 있었고, 현재도 미숙하다. 쓴 소리 바른 소리를 감사하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이 시대 간호인의 귀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그 대상이 선배이든 후배이든 환우와 보호자이든, 보편적인 이웃이든...

신, 구 간호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간호의 장이야 말로 Client에게 더 없이 풍요롭고 만족스런 간호 제공 터가 되며, 또 다른 사회교육의 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_ 김미선 예수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50회)
그림_ 최선영 간호학부 4학년

얘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쪽팔렸단다

류금주
효산의료재단 간호부장 (18회)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에는

믿음의 모양이 너무나 부끄러운 저는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집안에서 모태신앙이라는 큰 복의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마치 커다랗고 부드러운 캡슐처럼 언제나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횡재를 만나고 사는 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십분 공감하면서 저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가시밭길을 허락하심으로, 못난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 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눈물이 흐릅니다.

◉ 너무도 극심한 사탄의 궤계에,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이 힘이 들고 ,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팔려서 죽어 버리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쪽팔려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고난은 나를 위한 아름다운 경험

아버지의 너그러운 대답은 놀라운 평안의 바람으로 내 마음을 상쾌하게 덮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쪽팔렸단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무한성을 내뿜어버리고 싶은 의분을 억누르시면서 쪽팔림을 기꺼이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욱이나 이 모든 쪽팔림이 바로 나를 위해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항상 나를 울립니다. 그리고는 부활로 승리하신 그 분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비극의 상처들을 승리의 감사로 절묘하게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을 것 같은 쪽팔림의 상처 딱지들 때문에 용광로처럼 치밀던 울화를 아버지께서 주신 대답과 함께 찾아온 평안으로 리필하며, 용서와 인내로 승리하리라 결심하고 겸손의 띠를 조이던 때에 ... 바로 그 때에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안양에 있는 효산 의료재단이라는 새로운 소명지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이 재단은 샘 안양병원, 샘 한방병원, 샘 여성병원이라는 세 개의 병원과 두 개의 노인재활센터를 포함하여 다섯 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재단입니다. 설대위 원장님을 추억하게 할 만큼이나 암 환자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젊은 CEO 덕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맥 내 항암치료 시술이 이루어지며, 복강 내 전이 암을 열로 수술하는 HIPEC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지요. 또한 피부절개 없이 암 덩어리만을 잘라내는 HIFU Knife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앞서가는 병원입니다.

◉ 서울과는 30분 정도 거리여서 간호부장 공채 때마다 일류대학 출신들의 재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병원이라는데,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사택까지 제공하겠다면서 모셔가겠다는 어이없는 제의를, 제 삶의 깊은 고통을 감사와 겸손으로 덧칠하던 바로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인생길

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헤어져서 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어머님과 남편이 반대했고, 예수병원에 나의 모든 열정과 애정을 이미 소진한 후라서, 다른 기관을 사랑할 더 이상의 열정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의 말씀을 드렸으나, 그 재단 의료원장님의 너무나도 겸손하고 인격적인 권유에 내 아버지께 여쭙게 되었고, 잔잔한 바다위에 돛도 닻도 없이 떠있는 저를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곳으로 밀어 올리시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저는 새로운 소명의 땅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못된 나의 인격도 1밀리 정도쯤 자라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훨씬 뛰어넘어, 앞서 예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할 말을 잊고 감격하는 생생한 기쁨들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상처가 크고 억울함의 수렁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 고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보약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버리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매우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때때로 넘어지는 실수 없이는 도저히 갈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비롭도록 관대하신 아버지 품에 전폭적으로 내 몸을 맡기고 왈츠를 춤추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중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와 겸손의 허리띠를 더욱 조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손에 경이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당신을 응원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 분과 함께라면 당신의 고통의 상처는 반드시 영광의 승리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패스한 저는 지금, 피 흘림의 용서를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고마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온 몸의 세포구석구석마다 감격으로 누리면서 그 분과의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버리신 것들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볼 줄 아는 근시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뇌세포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멈추어 설 수 있는 분량만큼은 자란 듯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해가 돋는 섬, 독도

독도에 거주하는 김성도씨와

이지숙, 최경미 예수병원(49회)
정민경 예수병원(50회)

최근 일본은 독도 선점설(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점유하는 나라가 그 땅의 소유국이 된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도사랑의 시작은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독도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오게 되었다. 2박 3일이란 시간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의미 있고 나라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울릉도에서 독도행 배는 하루 한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날씨가 아주 청명해야 독도에 입항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독도입항을 기대하며 독도행 배에 올랐다. 독도행 유람선에 올라 탄 우리는 운이 좋게 마침 독도에 거주하는 김성도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활터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는 곳이 없다."며 독도 사랑과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독도에서 울릉도를 맨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영토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설명이다. 김성도씨는 최근 독도 영유권 표기문제와 더불어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하였다.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 실제로 독도에 입항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독도에 발을 내딛기란 쉽지 않았는데 독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다행이 눈부시게 맑은 날을 선사해 주어서 연이은 행운으로 독도에 입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 입항 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20분 안에 둘러보고 기적소리가 나면 얼른 유람선에 승선해야 하는 것과 독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원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라도 주워오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발을 내딛고 독도에 서니 찡한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다. 맑고 푸른 동해 한가운데 우리의 독도가 자랑스럽고 우리 땅 동해 끝을 지켜준다는 생각에 또 한번 가슴이 찡해왔다. 자연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경이 있는 독도는 카메라를 들이대는 곳마다 작품이 따로 없었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탁 트인 하늘을 보면서 감탄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다. 독도주변 바다는 각종 어류들과 특히 중요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었다. 온갖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섬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독도 주변 바다 밑에 엄청난 양의 망간과 미래의 에너지인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기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이 살아 숨쉬는 독도, 우리는 꼭 지켜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울릉도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는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광태 님의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훗날 이 날의 추억을 다시 찾아 울릉도와 독도를 다시 찾으려 한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

독도는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 · 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브릭스달의 푸른빙하

유럽, 설레임으로 물들다

김봉선 예수대학교 교수(20회)

무더운 날씨였던 지난 7월, 11박12일의 북유럽(덴마아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과 러시아 여행을 다녀왔다. 좋은 곳도 많이 있었지만 역시 기억에 가장 남는 곳은 노르웨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노르웨이는 밤이 긴 겨울에 우울증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의사는 "햇볕이 있는 이웃나라에 다녀오라"는 처방전을 낸다고 할 만큼 눈이 많고 겨울이 길다고 한다.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주변의 호수와 산에는 얼음과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아 북극권에 가깝게 진입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르고 잔잔한 수면 아래로 거울처럼 보이는 실루엣의 풍경들을 감상하며 나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길고(205km) 깊다(1309m)는 '송네 피요르드'는 수정같이 맑은 호수와 그 위를 한가로이 떠가는 유람선이, 폭포수가 되어 흐르는 깎아지른 듯한 아슬아슬한 빙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이루고 있어 이를 보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을 정도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오슬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프로그네르 공원의 비겔란 조각공원은 구스타브 비겔란이라는 가난한 조각가가 40여 년간 땀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200여점의 화강암 작품과 수많은 청동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다. 비겔란의 조각 작품의 주제는 인생은 돌고 도는 것, 인간의 일생과 희노애락을 다루었다고 한다. 17m 높이의 모노리스라는 하나의 화강암, 즉 통석에 조각된 121명의 남녀가 뒤엉킨 채 조각되어 있는 작품인데 무려 13년에 걸쳐 완성된 대작이라고 한다. 작가의 예술성도 대단하겠지만 미술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이렇게 큰 돌에 어떻게 조각을 했을까 의문스러웠다.

또 하나 잊지 못할 곳은 러시아의 에르미타쥬 미술관이었다. 미술관의 정식명칭은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에 손꼽힌다고 하는데 현재 1,020여 개의 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루빈슨, 피카소, 고갱, 고흐, 르느와르 등의 명화가 전시되어 있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들여온 조각품들과 이집트의 미라부터 현대의 병기에 이르는 고고학적 유물, 화폐와 메달, 장신구, 의상 등 300만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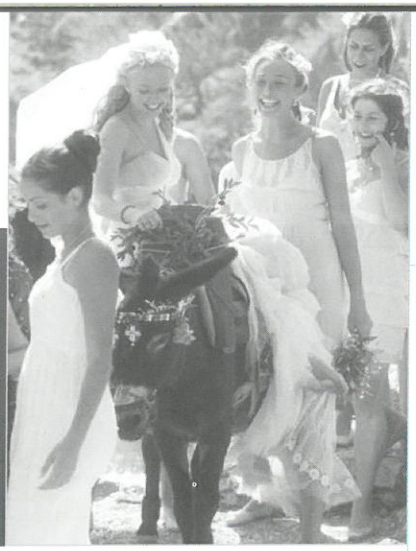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베르사유'라고 불리는 여름궁전이 있었다. 제정 러시아 황실의 여름 별장 인데 그 화려함과 그 거대한 규모에 입이 딱 벌어졌다. 궁전은 발틱 해를 바로 접하고 있으며 바닷가 주변에는 바로 숲과 정원이 이어지는데 이곳이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바로 분수 때문!!! 이 분수는 자연수압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황금분수에서 역동적인 삼손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작은 풀, 그리고 기다란 운하에 이어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길은 환상적이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지난 여름 여행은 지금도 나에게 설레임으로 남아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영화감상문 · 조민숙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 맘마미아



MAMMA MIA

'# 맘마미아'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경쾌한 잔상과 함께 아바의 많은 곡들이 입속에
맴돌아 절로 박자를 맞추는 발걸음, 들썩이는 어깨....
Dancing Queen~~ , Mamma Mia,.....

조민숙 예수병원보험과장 (27회)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리스

그리스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섬을 무대로 만든 그림 같은 이 영화는 아바(ABBA)의 주옥같은 노래들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발랄하고 매력적인 영화이다.

열정이 넘치는 이 파워풀한 영화는 마치 여성을 위한 영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결혼식을 앞둔 도나(메릴스트립)의 딸 소피(아만다 시프리드)가 I have a dream 을 부르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아빠 없이 엄마의 손에 자란 소피는 엄마인 도나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결혼식에 손을 잡고 입장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일기장 속에 나오는 엄마의 연인 3명을 초대한다. 생각지도 못한 과거 속에 3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자 당황한 도나가 "맘마미아(어머나!)"를 부르면서 영화는 전개된다. 도나의 딸 결혼식에 초대된 그 친구들 타냐, 로지의 우정 어린 엽기발랄은 영화의 분위기를 띄우는 감초역할을 한다.

나는 ABBA의 곡은 너무 들떠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참 경쾌하고 가사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특히 매릴 스트립이 부르는 "Winner takes it all"은 영화의 배경장면과 가사가 참 인상 깊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해안 절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장면은 피어스 브로스넌의 멋진 모습과 더불어 뮤지컬 맘마미아를 영화로 성공시킨 명장면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을 짤막하게 소개해본다.

I Have a Dream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노래)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내겐 꿈이 있어요, 환상이죠. 힘든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 줄
내가 닿을 목적지는, 어둠 속에서도 힘을 내 한 발짝을 더 옮겨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죠.

The Winner Takes It All (메릴 스트립이 노래)
The gods may throw a d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냉정한 신께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 중 누군가 지게 만들죠.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패자는 쓸쓸히 남아있겠죠.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제 영화관에서 보기는 어렵겠고 DVD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서 한번 기분전환해보기를 권합니다!

제4회 동문, 졸업 50주년과 제29회 동문, 졸업 25주년 재 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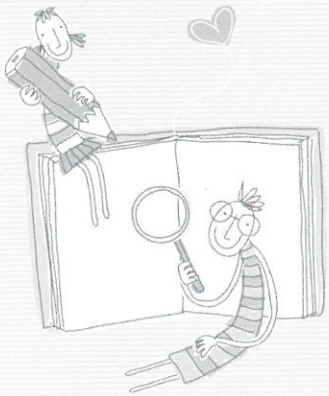
2007년 6월 1일(금) 오전 11시 모교 Seel Chapel에서 거행된 개교 57주년 기념 예배 시 4회 동문 졸업 50주년과 29회 동문 졸업 25주년 재 상봉이 있었다. 이날 국내 · 외 각지에서 참석한 동문들은 모교가 발전한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까마득한 후배인 재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에는 자신들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감격스러워 했다. 동문들은 발전기금을 김강미자 총장에게 전달하였고 오후에는 동문회의에 참석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5회 동문, 졸업 50주년과 제30회 동문, 졸업 25주년 재 상봉

2008년 5월 30일(금) 오전 11시 모교 Seel Chapel에서 거행된 개교 58주년 기념 예배시 5회 동문 졸업 50주년과 30회 동문 졸업 25주년 재 상봉이 있었다. 50주년을 맞은 김봉옥 동문은 이날을 위해 영국에서 방한하였으며 최신애 동문은 미국에서 방한하는 등 국내 · 외 각지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참석하여 만남의 기쁨을 가졌다. 특히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김석심 동문은 재 상봉에 꼭 참석하고 싶었으나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과 모교를 그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미국 조지아에서 편지로 보내오기도 하였다. 이날 동문들은 정성을 모은 발전기금을 김강미자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1. 회의 개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내용입니다. 동문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 의	일 시	주 요 안 건
제54차 정기총회	2007. 6. 1	2006년도 사업결산 및 예산보고 200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제55차 정기총회	2008. 5. 31	2007년도 사업결산 및 예산보고 2008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임원 개선 및 회칙수정 -개교60주년 행사협조 건 -교명의 국문과 영문 일치에 관한 건
상임이사회	2006. 10. 27	동문회 홈페이지 개설 건
	2006. 11. 28	대학 평의원 동문대표 추천 건
	2007. 1. 23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안
	2007. 4. 17	동문회 회칙 수정 건
	2007. 5. 10	조기제작 건: 김경림(24회)부회장 제작 증정
	2007. 10.16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건(2010년)
	2008. 4. 15	제55차 정기총회 준비 건 -2007년도 사업 및 결산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임원개선
	2008. 9. 23	교명의 국문과 영문 일치에 관한 재논의 (Jesus University) 조기 관리 및 사용 건 개교 60주년 행사 협조건

2. 임원개선

지난 55차 정기총회에서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임원 개선이 있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이다.

고문	전 학장	엄재정
	현 총장	김강미자
	제1회 동문	김정숙
	제1회 동문	박해옥
	전 동문 회장	공순구
	전 동문회장	유영삼
	전 동문회 제1부회장	김성란
임원	회 장	김경림(24회)
	제1부회장	박혜란(27회)
	부회장(전주)	양명순(24회) 양미자(26회) 유금남(28회)
		이영화(28회) 김미순(40회)
	부회장(서울)	최명자(18회) 김형자(22회)
		이길숙(24회) 양명석(29회)
	부회장(광주)	황희심 (4회) 정숙자(14회)
	부회장(대전)	이 라(8회) 김정숙(14회)
	부회장(강원)	주정님(16회)
	부회장(대구)	최학례(15회)
	부회장(부산)	박민자(16회) 윤옥희(23회) 김경희(28회)
	총 무	유금희(25회) 윤 진(27회)
	서 기	정여숙(22회) 정하숙(25회)
	회 계	이옥주(28회) 이은규(30회)
	감 사	전영신(23회) 한혜실(26회)

회장동정

- 김강미자 총장님 인사차 모교 방문 (08.6.4)
- 동문회 신임 임원진 상견례 (08.7.3)
- 동문회 신임부회장(서울,광주,대전,강원,대구,부산지역)에게 총회결과 안내문 발송(08.7.7)
- 공순구, 양순복 전임회장님, 김강미자 총장님 면담 (08.7.18)
- 2009년 예수대학교 졸업예정자 동문회비 납부 협조공문 발송(08.8.5)
-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회의 참석 (08.8.11)
- 모교 학생 예배시간에 설교 (08.9.4)
- 동문 임원회 개최 (08.9.23)
- 전북대학교병원재직 동문모임 참석 (08.10.10)
- 24회 임숙현 동문(미국 보스턴) 부친상 전북대병원 조문 (08.10.24)
- 모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예수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재직(1969-77년)하였던 레베카 간호선교사가 예수병원 개원110주년 참석차 방한하였을 때 전주 안내(08.10.29)

회원소식

◉ 유금주 동문(18회) 2007년2월 효산의료재단 간호부장에 취임.

효산의료재단은 샘 안양병원, 샘 한방병원, 샘 여성병원과 두개의 노인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기독교재단이다. 효산의료재단은 재단의 이념과 맞으며 신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유금주 동문을 간호부장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재단 의료원장이 직접 권유하고 설득하여 초빙하였으며 유금주 동문은 현재 탁월한 지도력으로 효산의료재단 병원의 간호부를 이끌고 있다.

◉ 고범자 동문(27회, 건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 팀장), 2008년 3월 병원신생아간호사회 회장으로 선출.

병원신생아간호사회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고범자 동문은 5대 회장으로서 앞으로 2년 동안 회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고범자 동문이 밝힌 2008년도 병원신생아간호사회 중점사업은 신생아간호 임상연구 및 QA 활동 지원,〈고위험 신생아 간호메뉴얼〉 개정발간 및 신생아관련 교육자료 제작, 신생아 감염관리(감염 및 환경관리 포함)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이라고 하였으며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우리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 송미령 동문(27회, 포 시니어스(주) 운영관리본부 부장), 노인복지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

송미령 동문은 졸업 후 예수병원과 인천중앙길병원을 거쳐 서울시니어스타워(실버타운) 간호팀에서 일하다가 현재 포 시니어스(주)(www.forseniors.co.kr)에서 노인복지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기위해 다방면의 연구 및 세미나에 동참하고 있고 실버산업전문가포럼에서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실버 박람회, 아시아 실버포럼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얼마전 너스케이프에서 취재에 응해달라는 부탁으로 7월호 나의 일, 나의 삶에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는 송미령 동문은 간호사로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긍지와 사명감으로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서 또 다른 간호의 영역을 개척해나간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노인 간호에 관심을 가져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노인 간호의 일익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

◉ 허순자 동문(27회), 2008년 서울 홍익병원 간호부장에 취임.

허순자 동문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벅찬 마음으로 소명 받은 간호사로의 25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초년시절에 누군가 도움 없이는 바깥구경을 할 수 없는 경추손상환자를 침대채로 끌고 나와 예수병원 잔디밭에서 기타 치며 함께 찬양 부르고, 사명감에 불타 뱅글라데쉬 선교합창단으로 열정을 쏟아냈던 20대를 지나 벌써 이십년이 훌쩍 넘었다고 회상하며, 매주 월요일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지금의 일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허순자 동문은 우리 동문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고,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늘 행복하시길 소망한다고 하였다.

◉ 윤매옥 동문(27회) 2008년 9월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기초간호학교수로 임용.

윤매옥 동문은 28여년을 예수병원에서 재직하였고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4서) 병동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었다. 2005년 2월에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말기암환자를 위한 영적 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하였다.

◉ 소성섭 동문(28회) 9988 방문간호센터 창업(063-236-9988).

소성섭 동문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내부모를 공경하듯 정성껏 어르신을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센터를 개설하였다. 9988 방문간호센터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성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해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소성섭 동문은 예수병원과 미국 LA 그랜드파크 노인재활병원에 재직하였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 이영화 동문(28회, 미르소아청소년병원 기획실장) 블로그 개설.

이영화 동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예쁜 들꽃, 음악과 함께 진솔하고 아름답게 펼친 블로그(이름: 소망 가운데)를 개설하였다. 블로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잔잔한 글과 음악이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전개되어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블로그 주소를 소개하면 http://blog.naver.com / movies720 이다. 블로그에 올라있는 글 중 예수대 동문과 관련한 글이 있어서 한 구절 옮겨본다.

〈회상〉

~중략

나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왜 지금 날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 대학교야 말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했던 산실이고
제 2의 고향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모교를 버릴 수 없도록 다시금 묶어 놓은 것이다.

~중략

◉ 유금남 동문(28회) 2008년 1월 전주병원 간호부장에 취임.

유금남 동문은 예수병원에서 15년 동안 조산사, 분만실 책임간호사로 재직하였었으며 최근 10년간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심사 업무로 간호의 장을 넓혀 왔었다.

◉ 문지원 동문(42회) 예찬 홈케어 창업(063-246-4000).

문지원 동문은 아주대병원, 전주병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 현대 해상 자보심사, 간호학원 강의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7월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가족들에게 효도의 기쁨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예찬 홈케어를 전주시 우아동에 개설하였다.

〈예수병원〉

◉ 전영신 동문(23회, 간호부장) 2008년 3월 전라북도 간호사회 회장으로 선출.

전영신 동문은 1976년 예수병원에 입사해 2005년 간호부장으로 임명된 후 탁월한 지도

력으로 간호사들의 조직력 강화와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환우를 섬기는 1004 Day 행사을 주관해 환우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친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번 더' 친절캠페인을 창안, "한번 더 설명하기, 한번 더 미소짓기, 한번 더 돌아보기"의 실천을 유도해 친절한 예수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전영신 동문은 2008년 4월 전북도민일보가 주관하는 친절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김봉선 동문(20회) 2008년 2월 예수대학교 간호학실습전담교수로 임용.

예수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재직한 김봉선 동문이 24년 동안 예수병원에서 쌓은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대학교 간호학실습 전담 교수로 임용되었다. 또한 김봉선 동문은 2007년 전북병원간호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임상현장에서 헌신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이효실 동문(29회, 간호과장) 2007년 3월 제20회 전북 병원간호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모범상 수상.

이효실 동문은 그동안의 열정과 성실함, 정직하고 근면한 태도와 우수한 지도력으로 헌신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함선희 동문(32회, 신경외과 중환자실 수간호사) 2007년 2월 국립암센터 종양전문간호 고위과정 우수상 수상.

함선희 동문은 국립암센터에서 5개월 과정으로 실시한 종양전문 고위과정의 최종평가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 한순희 동문(39회, 2남병동)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 주간을 맞아 국무총리상 수상.

한순희 동문은 예수병원 어린이집운영위원장으로서 탁월한 육아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 받아 여성인력 활용과 남녀고용평등의식을 확산시킨 유공자에 대해 표창하는 이날 수상한 것이다.

◉ 조혜숙 동문(44회, 응급센터) 2007년 4월 '개 다섯 마리와 염소 열다섯 마리?'로 대한간호문학상 수필상 수상.

조혜숙 동문은 8년 동안 응급센터에 근무하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느꼈던 에피소드를 글로 표현하여 수필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응급센터에 내원한 노부부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을 생생하게 그려내 간호사로서 느끼는 환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최미정(47회, 중환자실), 정은진 동문(50회, 7층병동) 2007년 4월 아프가니스탄 파송예배.

최미정, 정은진 두 동문은 아프가니스탄 키싸우 지역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파송되었으며 현지 사정에 의해 같은 해 8월 귀국하였다.

◉ 2007-2008년 전문간호사 11명 탄생.

예수병원에 재직 중인 11명의 동문이 대학원을 이수하고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는 관문을 거쳐 전문간호사로 탄생하였다.
노인전문간호사 : 조혜숙(44회), 김은실(31회), 이효실(29회), 박정순(28회), 이성숙(29회), 이덕자(34회), 엄혜경(34회), 김평년(39회) 종양전문간호사: 함선희(32회)
호스피스전문간호사 : 박정자(31회) 김숙희(24회)

좌 위로부터 : 박정순, 엄혜경, 이효실, 박정자, 함선희, 이성숙, 김숙희, 김평년, 김은실, 조혜숙, 이덕자

Jesus University news

평생교육원 간호학사 학위 취득과정 개설

2007년 3월 간호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가 평생교육원에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과목(30학점)을 1년 동안에 이수하게 되면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우리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2008년 2월에는 19명이 간호학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8월에는 10명이 간호학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복지학부 실습선서 예배

2007년 5월 29일 Seel Chapel에서 사회복지 학부 실습 선서예배가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 학부 학생이 실습에 임하기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실습선서 예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것이어서 교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유휴간호사 교육 실시

우리대학교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커리어 코칭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경력단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으로 약 70여명의 유휴간호사가 교육을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업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라북도 선정, 지역인적자원개발(HRD) 멘토링사업 실시

우리대학교는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저학년 아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학부, 동심제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07년 11월 사회복지학부 학술제인 제1회 동심제가 열렸다. 학술제는 '사회복지 자원동원과 개발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와 산 · 학협약식, 학생들이 제작한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35가지' 라는 주제의 영상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온고을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교수와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 즐겁고 활기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카나가와현 사회복지법인 성음회와 협약체결

우리대학교는 일본 카나가와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음회와 협약체결을 하고 학술교류와 사회복지학부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교류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여름방학동안 사회복지학부 학생 4명이 일본 현지에 가서 실습을 하였다.

이디오피아 명성 기독병원 간호학생 실습

2004년 황성자 교수가 이디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의 간호부장으로서 1년간 단기선교를 다녀온 이후 간호학부 학생의 선택실습지역으로 매년 2-3명의 학생이 이디오피아에 실습을 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도 2명의 학생이 약 4주간의 실습을 하고 돌아왔다.

요양보호사교육원 개설

2008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설하고 요양보호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따른 새로운 인력으로 우리대학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호응이 좋아 2008년 10월 현재 제4차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개소

2008년 4월 25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대한심폐소생협회, 미국심장협회 인증을 받아 개소하게 되는데 국내 간호대학으로서는 최초로 개소한 것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현재 우리대학 재학생,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간호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t. Louis시 Midwest University 와 자매결연

우리대학교는 2008년 4월 Midwest University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미국 중부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미드웨스트 대학은 미 연방 정부 및 미국대학인가 협회의 인준을 받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의 영어 연수와 실무현장 인턴쉽 실습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Indiana Univesity Kokoma(IUK) 교수와 학생방문

2008년 5월 9일부터 22일까지 IUK Linda Wallace 교수와 학생 Tina Galley가 우리대학을 방문하여 재학생들과 교류시간을 가졌고 간호실습현장을 방문하였다. 1월에는 우리대학 간호학부 학생 6명과 황성자 교수가 IUK를 방문하여 병원실습과 수업 참여 등의 교류를 가졌었다. IUK와의 교류는 2001년 협약체결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 Life University와 자매결연

우리대학교는 2008년 5월 캄보디아 Life University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Life University는 캄보디아의 유일한 기독교 종합대학으로서 캄보디아 최초의 간호 학사 학위과정(첫 입학생 33명)을 개설하였다. 현재 김조자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Life University의 2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09년부터 우리대학교 간호학부 학생의 선택실습지로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캄보디아에 갈 계획이다. 2008년 7월에는 Life University 김조자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수진 약 20여명이 우리대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교수 임용

우리대학교는 2007년 3월 서혜석 교수(사회복지학부), 엄애용 교수(간호학부)를 신임교수로 임용하였고 2008년에는 김봉선 교수(간호학부, 20회 동문), 심정하 교수(간호학부, 37회 동문), David 교수(교양영어), 김경휘 교수(사회복지학부), 정정미 교수(간호학부)를 신임교수로 임용하였다.

대학발전기금

〈2006. 9. 1 ~ 2008. 10. 21〉

2006년 9월 1일 부터 2008년 10월 21일까지 예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예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번	성 명	구 분	졸업회수	소 속	기부액
1	박해옥	동문	1회		230,000
2	오정옥	해외동문	1회	미국	232,865
3	구원예	해외동문	3회	미국	232,865
4	김완주	해외동문	4회	미국	798,860
5	박정순	해외동문	4회	미국	461,900
6	변영춘	해외동문	4회	미국	461,900
7	양순복	동문	4회		1,000,000
8	오영주	해외동문	4회	미국	9,862,826
9	위형심	해외동문	4회	캐나다	277,140
10	유애수	해외동문	4회	미국	815,310
11	윤주인	해외동문	4회	미국	694,765
12	이순모	동문	4회		250,000
13	이영자	동문	4회	미국	250,000
14	이인수	동문	4회		500,000
15	조금주	해외동문	4회	미국	582,445
16	조영옥	해외동문	4회	미국	461,900
17	고정원	동문	5회	한국간병인협회	690,000
18	김봉옥	해외동문	5회	영국	620,545
19	김석심	해외동문	5회	미국	1,150,602
20	송영숙	해외동문	5회	미국	112,320
21	심영희	해외동문	5회	미국	232,865
22	엄재정	동문	5회		1,000,000
23	이애자	해외동문	5회	캐나다	528,795
24	이준례	동문	5회		500,000
25	최신애	해외동문	5회	미국	1,014,520
26	황영례	동문	5회		500,000
27	유복희	해외동문	6회	미국	120,545
28	정정자	해외동문	6회	미국	112,320
29	현순영	해외동문	6회	미국	112,320

연번	성 명	구 분	졸업회수	소 속	기부액
30	고필례	해외동문	7회	미국	112,320
31	김순옥	해외동문	7회	미국	232,865
32	염정임	동문	7회		200,000
33	곽광자	동문	9회	보람병원간호부장	420,000
34	곽정자	해외동문	10회	미국	8,740,000
35	문옥자	해외동문	10회	이디오피아	9,249,935
36	박은영	동문	10회		1,000,000
37	김혜숙	해외동문	11회	미국	232,865
38	진청자	해외동문	11회	미국	232,865
39	김영자	해외동문	12회	미국	232,865
40	권경애	해외동문	13회	미국	112,320
41	김정숙	동문	14회		5,000,000
42	유영삼	동문	14회		11,500,000
43	김강미자	동문	15회	예수대	1,500,000
44	오은숙	동문	15회		500,000
45	김선	해외동문	16회	미국	232,865
46	최규자	해외동문	16회	미국	112,320
47	김길여	해외동문	17회	미국	112,320
48	김영순	동문	18회		7,000,000
49	류금주	동문	18회		1,000,000
50	서정례	동문	18회		210,000
51	최명자	동문	18회		3,000,000
52	송국희	동문	19회		200,000
53	유점순	동문	19회	제일병원	960,000
54	정성희	해외동문	19회	미국	232,865
55	강옥수	해외동문	20회	미국	112,320
56	이혜자	해외동문	21회	미국	232,865
57	한경희	해외동문	21회	미국	232,865
58	홍의숙	해외동문	21회	미국	232,865

감사합니다! 대학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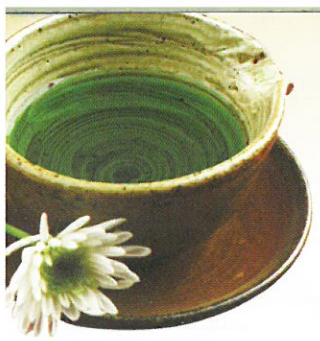
연번	성 명	구 분	졸업회수	소 속	기부액
59	국성순	해외동문	22회	미국	936,000
60	이덕실	동문	22회	군산의료원	130,000
61	이은숙	해외동문	22회	미국	232,865
62	정여숙	동문	22회	예수대	600,000
63	김정희	동문	23회	한양대병원	30,000
64	오경희	해외동문	23회	미국	698,594
65	윤옥희	동문	23회	부산	2,400,000
66	이춘심	해외동문	23회	네팔	1,000,000
67	전영신	동문	23회	예수병원	1,060,000
68	김경림	동문	24회		5,000,000
69	박정숙	해외동문	24회	미국	112,320
70	양명순	동문	24회		2,000,000
71	이은희	동문	24회	제일병원	240,000
72	이혜숙	해외동문	24회	미국	112,320
73	최양숙	해외동문	24회	미국	936,000
74	김현숙	동문	25회	건양대병원	100,000
75	김혜숙	동문	25회		280,800
76	임순옥	동문	25회		1,000,000
77	김오선	동문	26회		1,000,000
78	김희자	동문	26회		720,000
79	이배옥	해외동문	26회	미국	112,320
80	전덕희	해외동문	26회		112,320
81	김영조	동문	27회	제일병원	160,000
82	김혜련	해외동문	27회	미국	580,320
83	라옥이	동문	27회	한양대병원	690,000
84	윤진	동문	27회	예수대	4,500,000
85	조민옥	동문	27회		20,000,000
86	홍예숙	해외동문	27회	미국	120,545
87	권경희	동문	28회		330,000
88	조현오	동문	28회	제일병원	240,000
89	29회	동문	29회	재상봉	9,000,000
90	김경희	동문	29회	예수병원	3,000,000
91	백초숙	동문	29회	한양대병원	540,000
92	30회	동문	30회	재상봉	10,000,000
93	이순복	동문	30회	예수병원(이사회비)	150,000
94	이은규	동문	30회	예수병원(이사회비)	150,000
95	박복임	동문	32회		500,000
96	이혜영	동문	32회		400,000
97	이화재	동문	32회	군산시보건소	1,100,000

연번	성 명	구 분	졸업회수	소 속	기부액
98	최혜순	동문	32회	한양대병원	660,000
99	노인숙	동문	33회	전주호남제일고	200,000
100	박부윤	동문	33회	김제소방서	540,000
101	홍영란	동문	33회	예수병원(이사회비)	200,000
102	고영미	동문	34회	아산병원	630,000
103	곽혜현	동문	34회	황등초등학교	420,000
104	박연임	동문	34회		10,000
105	신향숙	동문	34회	삼성병원	850,000
106	이영화	동문	34회	장계공업고	2,200,000
107	최정희	동문	34회	전주송원초	420,000
108	류현심	동문	35회		730,000
109	박해진	동문	35회	아산병원	630,000
110	온미영	동문	35회	제일병원	240,000
111	이미선	해외동문	35회	미국	112,320
112	전미숙	동문	35회	고산초	540,000
113	이영현	동문	36회		140,000
114	조정순	동문	36회	단국대병원	690,000
115	소은미	동문	37회	임실청웅초	690,000
116	심정하	동문	37회	교직원	350,000
117	이강인	동문	37회	예수병원	500,000
118	김은정	해외동문	38회	미국	1,468,000
119	이진영	동문	38회	전주서신초	400,000
120	정은미	동문	39회	아산병원	570,000
121	김미순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22	김민정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23	김성미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24	남인순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25	박미선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26	박은례	동문	40회	전주완산서초	660,000
127	소영진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28	소현	동문	40회	완주군 봉동초	210,000
129	이윤정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4,900,000
130	전진야	동문	40회	원광대학병원	100,000
131	조정희	동문	40회		850,000
132	태선영	동문	40회	간중초등학교	460,000
133	허수영	동문	40회	원광대산본병원	100,000
134	홍은영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950,000
135	김윤정	해외동문	41회	영국	584,992
136	김정은	동문	41회	남원도통초	10,000

대학발전기금 감사합니다!

연번	성 명	구 분	졸업회수	소 속	기부액
137	박계순	동문	41회		160,000
138	방양옥	동문	41회	삼성병원	460,000
139	정인숙	동문	41회	전북대병원	3,000,000
140	최은주	동문	41회	전북대병원	950,000
141	김소연	동문	42회	한양대병원	300,000
142	송현정	동문	42회	전북대병원	950,000
143	탁은주	동문	42회	전북대병원	950,000
144	김미순	동문	43회	단국대병원	360,000
145	배지연	동문	43회	전북대병원	550,000
146	이민정	동문	43회	전북대병원	600,000
147	이애영	동문	43회	군산의료원	120,000
148	김주선	동문	44회	천안단국대학병원	120,000
149	정분남	동문	44회		120,000
150	신수일	동문	45회	한양대병원	450,000
151	윤선희	동문	45회	삼성병원	460,000
152	한성주	동문	45회		220,000
153	김은경	동문	46회	전북대병원	650,000
154	손정자	동문	46회	전북대병원	950,000
155	이숙	동문	46회	부안성모병원	30,000
156	김진희	동문	47회		500,000
157	김효순	동문	47회	전북대병원	400,000
158	박현미	동문	47회	전북대병원	100,000
159	박현주	동문	47회	전북대병원	100,000
160	양효정	동문	47회	삼성병원	240,000
161	이민정	동문	47회	군산의료원	400,000
162	이주희	동문	47회	전북대병원	950,000
163	임윤미	동문	47회	삼성병원	230,000
164	진귀옥	동문	47회	한양대병원	720,000
165	한주연	해외동문	47회		112,320
166	강희정	동문	48회		390,000
167	김지영	동문	48회		60,000
168	노정호	동문	48회	전북대병원	150,000
169	박미주	동문	48회	순천향천안병원	150,000
170	송영혜	동문	48회	천안단국대학병원	240,000
171	안신애	동문	48회		110,000
172	양인숙	동문	48회	원광대산본병원	100,000
173	원경화	동문	48회		150,000
174	임후남	동문	48회	전북대병원	950,000
175	조미희	동문	48회	전북대병원	950,000

연번	성 명	구 분	졸업회수	소 속	기부액
176	김선미	동문	49회	전북대병원	300,000
177	김선화	동문	49회	한양대병원	420,000
178	김은정	동문	49회	전북대병원	50,000
179	박진아	동문	49회	전북대병원	950,000
180	최경현	동문	49회	전북대병원	950,000
181	김순실	동문	50회	순천향천안병원	240,000
182	김주희	동문	50회	천안단국대학병원	230,000
183	서승진	동문	50회	전북대병원	250,000
184	이경숙	동문	50회	순천향천안병원	40,000
185	이수민	동문	50회	전북대병원	250,000
186	정은순	동문	50회	전북대병원	950,000
187	김라미	동문	51회	전북대병원	300,000
188	김민희	동문	51회	전북대병원	950,000
189	송하준	동문	51회	아산정신병원	160,000
190	양미정	동문	51회	건양대	230,000
191	이은진	동문	51회	순천향천안병원	230,000
192	이찬영	동문	51회	원광대산본병원	50,000
193	조은혜	동문	51회	전북대병원	950,000
194	강은경	동문	52회	제일병원	200,000
195	김누리	동문	52회	제일병원	240,000
196	배세현	동문	52회	아산정신병원	110,000
197	손연금	동문	52회		130,000
198	양지선	동문	52회	군산의료원	10,000
199	정은주	동문	52회	전북대병원	600,000
200	최선화	동문	52회		100,000
201	06학년졸업생	동문	53회		1,000,000
202	아주대병원동문	동문			2,500,000
203	김성임	동문			160,000
204	원광대동문	동문			1,000,000
205	화의심	동문			1,000,000
206	07학년졸업생	동문	07년도		1,000,000
207	권혜은	재학생			100,000
208	장화	재학생			400,000
209	정남희	재학생			100,000
210	김희정 이선희	재학생	4학년	로타렉트	300,000
211	이희정	재학생	3학년	로타렉트	100,000
총 계					209,886,960



예수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예수대학교의 58년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성원은 세계만방에 파견될 선교 간호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대학교 발전기금 약정(기부)서

※ 약정하신 분의 자료는 영구 보존되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정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 ) -	
	자택주소 (-)	
	직장명(직위) : 전화( ) -	
	직장주소(-)	
구 분	①동문 □ 학과 : 입학년도 : 졸업년도 : ②재학생 □ 대학(원) : 학과 : 학년 : ③학부모 □ 자녀성명 : 학과 : 학년 : ④일반인 □ 본교와의 관계 : ⑤기타 □	
참여방법	1. 예수대학교 발전 기금 ( ) 2. 부동산 ( ) 3. 유가증권 ( ) 4. 기타 ( )	
약정(기부)액	금 원	자동납부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분납)
	입금은행 :	일시납 200 년 월 일 납부(예정)

*약정 방법 안내 :

①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www.mpu.ac.kr 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예수대학교에 기부(약정)하시면 전액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세금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문의전화 : (063) 230-7703, 7726 FAX : (063) 230-7709, 7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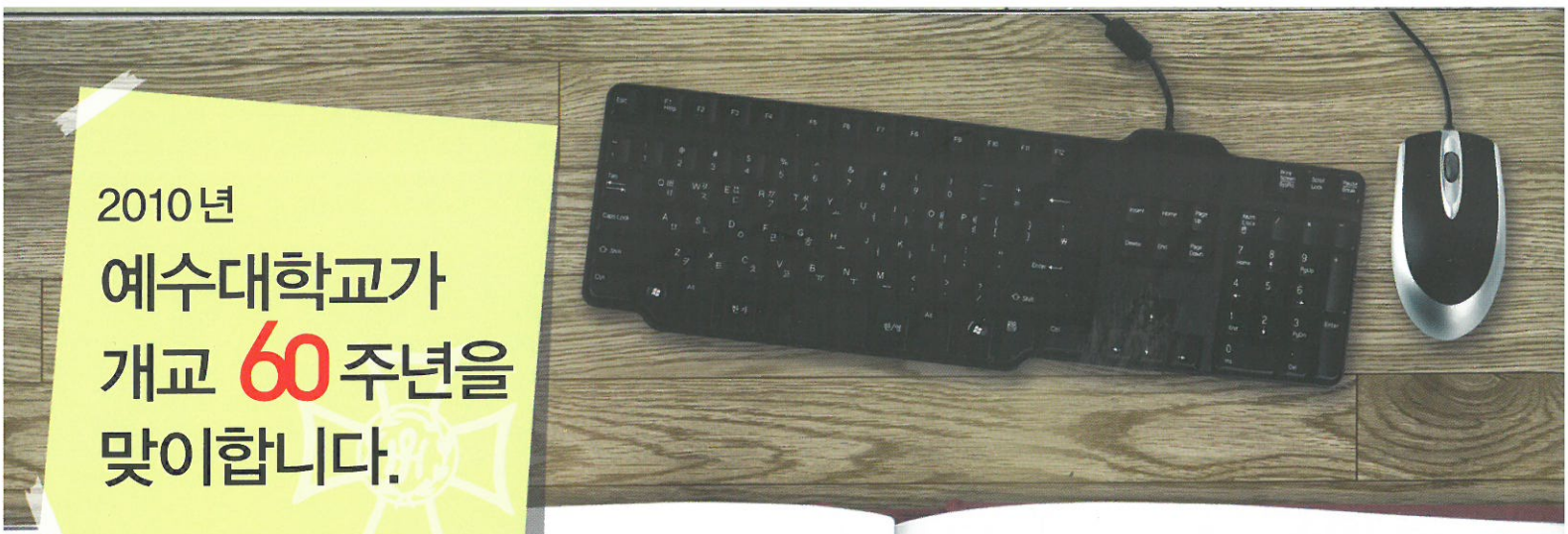
위와 같이 기부(약정) 합니다.

20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날인 또는 서명)

예수대학교발전후원회 회장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예 금 주 : 예 수 대 학 교
		□ 전북은행 510-23-0314900 □ 신한(조흥)은행 702-01-135580
		□ 농 협 508-01-059783 □ 국민은행 751901-01-422742
		□ □ 한국외환은행 631-000329-146
		□ 우리은행 1005-801-091766 □ 하나은행 702-910018-56204



2010년

예수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1950년 세워진 우리 대학이 2010년 6월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뜻깊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화보집과 역사자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뜻깊은 이 사업을 위해 기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먼지 가득한 추억을 털어 예수대학교 60주년에 당신의 자취를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모든 자료는 예수대학교의 역사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예수대학교는 기증하신 모든 분의 뜻을 소중히 기리며 기념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자료는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요.

- 일 시 : 2009년 3월 30일까지
- 사 진 : 예수대학교와 관련있는 사진
- 서 류 : 동문들의 졸업증서, 성적표 등
- 회지,신문자료 : 녹우회보, 신문 등
- 유니폼, 배지 : 실습유니폼, 배지(badge) 등
- 팜플렛자료 : 캔들합창단 공연팜플렛, 총학 축제 팜플렛 등 모든 관련 팜플렛
- 기타 자료 : 이외 관련된 자료

_문의_

예수대학교 60주년 준비위원회 063)230-7770

E-mail : soso@mpu.ac.kr

예수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편집위원

윤 진, 김봉선, 정하숙, 양복순, 조민숙, 김윤이